

허점 많은 기독교(서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 뿐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6-10)

복음의 변질은 결코 오늘날 이 시대에만 있어 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변질이 되어 왔고, 배도의 역사는 더욱 거세게 교회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지옥의 문들이라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18).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에 반해 사탄의 모임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했으며, 변질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 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겨주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이 오늘날에만 해당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가르치고 있고, 사실상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도 지금의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설교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대부분 그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허점은 사탄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복음이 참 복음인 것처럼 행세를 한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일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이러한 일들을 드물게 보는 이유는 세상이 점차 눈이 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세상의 핍박보다 더욱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변질 된 복음입니다.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만을 사망에 이룰 수 있게 하지만, 변질된 복음은 아예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타격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당을 다니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10 년 20 년을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도 모르는 영적 소경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록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아서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구원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고린도전서 5:5). 그 이유는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등을 통하여 분명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매우 건전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건전한 사회, 가정, 국가를 주장하며 계몽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구원의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너무도 변질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의 가정에 한 권 이상의 성경책을 보유할 만큼 많이 보급되어진 상태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16 세기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보급되지 않아서 일부 전도자들과 부유한 자들만 소유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탐구하는 일을 계속했다면(사도행전 17:11) 오늘날의 교회는 더 이상 거짓 전도자들과 거짓 복음에 농락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불교의 주지승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과는 다르며, 모순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술모임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보다 더욱 많은 성경을 암송하며 오히려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표적은 비단 그들만이 아닙니다. 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어떤 단체는 아예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매우 많은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순들의 대부분은 심각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치지 못한다면 더욱 큰 혼란을 가져 올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경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혼합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들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둔하고 더욱 강력하게 고수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이방종교로부터 온 것들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령 바알의 축제일인 12 월 25 일이 성탄절로 둔갑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부활절로

알고 있는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 역시 대대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축제일에 달걀을 먹는 풍습까지도 들여와 달걀이 동이 나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금번 주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허점들을 찾아서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바로잡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저 자료로만 간직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에 적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다만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묘하게 교회의 약점들을 찾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약점들을 잘 파악하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허점많은 기독교 I

무너진 교회관

제 1 장 주님의 교회를 위협했던 가톨릭

제 2 장 교회연합운동

제 3 장 개교회 주의자들

제 4 장 적극적 사고방식

제 1 장 주님의 교회를 위협했던 가톨릭

이로써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간교한 술수로 속이고자 하는 자들의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하는 것을 받아 서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주느니라(에베소서 4:13-16)

기독교의 많은 허점 가운데 교회관을 가장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탄의 파상적인 공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사탄은 핍박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각 가정마다 공급이 되었고, 사람들의 지식수준은 매우 향상되어 무력을 통한 핍박이 더 이상 효과를 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변질된 교회관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소유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일부 종파에서 이 이름을 도용하여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성경은 교회의 소유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 세대를 걸쳐서 변질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위협했던 가톨릭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사에 관하여 말할 때 가톨릭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톨릭은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파 중심의 교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모체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반대로 그들의 의해 핍박을 받아 왔던 재침례교인들을 비롯한 순수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의 실체가 적그리스도적이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짐승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가톨릭 교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아직도 그들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종교는 전통적으로 혼합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당시에 워낙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전통적인 로마 종교와 혼합시키면서 오늘날의 가톨릭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신앙의 근원은 바벨론에 두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 대부분의 종교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에 들어 갈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닮치는 대로 들여와서 그들의 우상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로마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쥬피터, 비너스, 이스터, 호시리스, 세미라미스, 탐무즈 등 수없이 많은 우상들은 로마의 궁 안을 장식했으며, 이제는 예수님마저도 그들과 같은 대열에 놓고 형상화하여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을 매력적인 종교로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타종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웃음 띤 얼굴로 다가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꿈은 우주적인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이 올 때 무당의 굿을 보여 줄 정도로 종교적인 신념을 저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것은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세를 받는 순간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등록이 되는 심히 부러워 할만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하나의 조직 아래 통솔되고 움직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은 세상의 누구라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통치자입니다. 그들은 이 막강한 통치자를 교회보다, 그리고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교황의 말을 경청하며 그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상 주님의 교회는 그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이었으며, 교회는 그들의 영적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는 교제의 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침례와 만찬을 제외한 어떠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했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가톨릭의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교회당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착각하는가 하면, 교회당 안의 기물들을 성물이라 하여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설교 강단은 마치 신적인 권위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여 그곳에 오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만일 함부로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도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하여 특별하게 생각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목회자에게는 어떠한 신적인 권위를 부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지만 목회자는 다만 성경 말씀을 대언하여 가르치는 자 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심부름을 하는 자 일 뿐입니다. 그들은 교황이나 신부들처럼 죄를 사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도 바울처럼 언제나 자신을 억제하며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종의 역할을 잘 못 하게 된다면 책망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가톨릭의 누룩은 오늘날 기독교회의 가장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가톨릭과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지하로부터 나오도록 해서 가톨릭 교회를 형성한 이후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줄 곧 주장해 온 가르침입니다. 그들의 요소에는 대부분의 가르침이 주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교황과 교회의 권위 아래 둘 정도로 이미 성경의 가르침들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있는 이상 성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 까닭에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우상들마저도 그들의 교회 안에 두고 섬기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 성경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성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안에 그들의 전통과 의식을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가톨릭이 큰집이고, 기독교회는 작은 집이다"라고 말하는 이들 앞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결코 가톨릭의 작은 집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톨릭은 지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 천 만 명이나 학살했던 대적자였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2 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이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정치 세력에 불과한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성경을 뒤로하며, 세상의 학문과 철학, 그리고 유전을 따라 간다면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더욱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누룩을 가져오게 된다면 부패되어 더 이상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톨릭의 누룩들을 제거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골로새서 2:8)

제2장 교회연합운동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못한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으며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한 몫을 나누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6:14-18)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회는 그야말로 복잡합니다. 서로 다른 교리와 교파를 형성해서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비쳐진 것이 사실이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소모적인 경쟁을 지향하고 이제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유감스럽게도 사탄의 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교회를 하나의 정치 집단화를 시키면서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 사탄의 꼭두각시가 된 기독교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은사를 지니고 있으며, 각기 다른 환경과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도 특색에 맞추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소에서 자신의 각양 은사로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들은 동일한 생각을 요구하며 집단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교리, 같은 지역,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로 모아서 정치세력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숫자가 많을수록 힘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회에 한하여 연합운동을 진행하더니 이제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일의 배후에 로마 가톨릭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기독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에 가서 축복하고, 교회 안으로 가톨릭 신부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기도 하며, 자신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임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종교통합 운동의 한 가운데 서서 눈먼 상태에서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 교회연합운동과 오순절주의자들

교회연합운동과 오순절 주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종교통합을 이루기 위한 무기로 이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언, 환상, 입신, 대언, 병 고침 등은 온 교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교회는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방언을 배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환상과 대언을 하는 자들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으며, 환자들은 병 고침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속임수들이 성행하였고, 거짓 전도자들은 심지어 최면술을 배워 가지고 슬며시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는 이들까지도 현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가톨릭의 예수회에서 해오던 영성 훈련을 기독교회에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남미(주로 가톨릭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켜 가고 있었고, 점차 미국의 서부지방을 거쳐서 세계로 확산시키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만을 가졌지 실제로는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면서 세력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병 고치지 못하는 목사는 능력이 없는 목사로 매도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목사들은 이러한 오순절 주의자들의 치밀한 계략에 넘어가 그들의 부흥 비결을 배우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종 기적들은 결코 기독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던 수많은 종교에서 더욱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령 우리가 무속신앙을 가졌던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성을 다해 공을 들였을 때 병이 낫거나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기극이라고 하지만 마리아의 동상에서 눈물이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피를 흘린단든지 하는 것들을 봅니다. 실제로 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보다 더욱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은 오직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라 하리라(마태복음 7:22,23)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결코 기적을 행한다고 참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거짓 전도자들에게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속성상 기적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적을 보면서 그가 자신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교묘히 이용하여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성경보다는 기적에 의존하는 성도들로 조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은 뒤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를 계산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략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오순절 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연합 집회를 통하여 교회의 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의 기독교회는 그 어떤 특징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종교에도 못 미치는 빈약한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모두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교회는 걸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을 얻은 증거였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성경에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러한 성경구절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교회 안으로 더 데려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집 드나들 듯 다니기도 하고, 유명한 부흥 강사를 거액을 들여 모셔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교회가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교회가 사탄의 작전에 완전히 넘어간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뒤로하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속해서 교회가 성경을 버리고 기적에 의존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 자신들의 은사를 뒤로하고 획일적이고 특징 없는 종교단체로 전략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는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를 친히 보호하실 것이며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가 있다면 오직 성경만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들을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전도자들이 성경을 버리고 교회연합운동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고백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한 자녀이며, 한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자칫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 더욱 깨어 있어서 그들의 성경이 아닌 인간적인 논리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3장 개교회 주의자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교회에게 주사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에베소서 1:22-23)

저의 친척 중의 한 분이 언제나 저를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손님 많이 늘었냐?" 저는 이러한 인사를 받을 때마다 질색을 하면서 "교회는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하고 만날 때마다 변명을 해 보지만 그분은 매번 똑같은 인사로 저를 대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그 말을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눈으로 보여 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영업을 하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은 이미 사업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도의적인 것도, 기본적인 원칙도 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할 뿐입니다. 일반적인 원리가 그러하듯이 남이 잘되면 내가 도태되고 남이 안되면 내가 잘된다는 계산이 교회 안에서도 깔려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회는 경쟁 체제를 갖추어서 치열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성장 지향적인 교회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널리 흩어지니라(사도행전 8:1)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자신들의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셨고,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흠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졌고, 많은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많은 이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도록 증거 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결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다음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원대한 꿈을 펼치지도 않았고, 거대한 교회당을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결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곳을 찾아 복음을 증거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런 일들이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 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사도행전 20:23-24)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바울과 같이 결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자리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들을 찾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세대는 이미 이러한 일들에는 너무도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하루라도 빨리 안정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는 세상보다 더욱 부도덕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단 그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과거는 용서를 해 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조리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일삼더라도 일단 부와 명예, 권세를 가지게 되면 과거의 일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힘이 생기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무리 이단적이고 비진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서로 타협하고 면죄부를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 선 것이 언론임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기독교 관련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방송국들은 그들을 후원자로 이끌어 내기 위해 변호해 주고 광고해 주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히 이러한 언론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분별할 겨를도 없이 그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은 모든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목사들이 주님의 사역을 하겠노라고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각오는 "아골골짜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신학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 이력서를 제출하며 사역할 곳을 찾아야 하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서 거취를 결정하는 직업으로서의 목회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느덧 교회는 사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매우 매력적인 고객이자 영업장입니다. 대형교회의 경우 매주 수 억 원의 현금을 소비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치열하게 교회에 로비를 하고 입찰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교회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가장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건물을 부숴야만 하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있는 목회자는 더 이상 주님의 종이 아닌 한 거대한 기업의 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이러한 성장 지향적인 교회들로 인해 교회관이 무너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교회 주의가 낳은 열매들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도 이단종교들이 있지만 아마도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더욱 큰 원인은 개교회 주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위협하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교회가 성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것일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면 적용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들은 많은 이단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갈라디아서 1:9)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소유가 주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빼앗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그들의 최종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전통과 유전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정죄함에 있어서도 더 이상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조차도 이미 성경에서 너무도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나친 개교회주의로 인해 자신들의 교회를 말씀으로 비쳐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커버린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까닭에 누구도 다른 복음, 거짓 진리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는 지역교회(Local church)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대로의 교리와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혼동하고 있습니다. 개교회는 모든 운영에 있어서 자치적이어야 합니다. 어느 다른 교회로부터 간섭 받지 않으며,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히 고립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제는 결코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구성해가는데 있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보다 영향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정치 세력화를 시도했고, 교회는 언제나 정치의 시녀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형교회들일수록 작게는 교회정치, 크게는 정부와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교회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문제 해결이 있다면

그렇다면 성장 지향적이고 개교회주의로 인하여 허점을 보인 기독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모든 교회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작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의 전통도 버리고 다시 성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정치세력화 했던 모든 것들을 폐하고, 오직 성경을 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 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기들만의 가르침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이들로부터 간섭은 받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교회가 성경을 기초로 서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가기 위해서 교제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독선적이라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두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은 바로 그들을 더욱 명분이 있게 만들어 준다는데 있습니다. 건전한 복음을 가진 교회들이 교제를 지속해 가는 것은 바른 복음의 기초를 세워 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그 소유를 주장할 아무런 명분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만이 주님의 교회이고, 다른 교회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4장 적극적 사고방식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골로새서 2:8)

이 나라의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면 역시 은사주의, 혹은 신비주의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보다는 병 고침을 받고, 가정과 사업,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는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은 사실상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고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경로를 생각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매우 사탄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대며 이 사고를 변호하려 하겠지만 그것들은 매우 터무니없고 복음을 약화시키려는 사탄의 술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이 최근 수 십 년 사이에 있어 온 운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어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 여자가 본 즉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두 사람이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치마를 만들었더라(창세기 3:4-7)

인류가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브가 뱀의 꾀에 빠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결과가 가져오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멈추지를 않았으며, 그들은 종교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는 공통점은 바로 뉴에이지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종교가 말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겠다는 의지가 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의 성품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영적, 사회적, 정치적인 것과 사회학, 신학, 과학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이 뉴에이지 사상도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All is one)라는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은 신(All is God)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모든 인간은 신(Everyone is God)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상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신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구약시대의 왕들은 대부분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한 날을 정하여 왕복을 차려 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이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사도행전 12:21-23)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18) 그들은 사람 안에 있는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펼치는 것은 "계몽운동"입니다. 그들은 언론이나 각종 전파 매체를 통하여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말하며, 집단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뉴에이지 운동이 보편적인 것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뿌리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잠재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상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숨겨진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각종 수련회나 연수 등을 통해서 확실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교회 안으로 들어 온 대표적인 사람은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로 유명한 로버트 솔러 목사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도입한 목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한 목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적극적 사고방식은 오래 전부터 교회 안에서 가르쳐 온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솔러 목사가 주장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는 가능성 있는 사고를 주장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상상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는데 그가 크리스탈 교회를 상상하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건축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에도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사고에 기초를 두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결코 희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can do"(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된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못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워가며 물질과 명예, 그리고 권세까지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사상 덕분에 거대한 집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숫자와 부요함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잊고 교회의 역할을 하려고 인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극적 사고방식은 그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사상을 받아 교회 안에 적용하기 시작한 신학의 대표적인 경우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심기 시작했고, 회개나 거듭남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며,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숙해 질 수 있으며 그들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심기 시작했고, 회개나 거듭남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침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며, 복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성숙해 질 수 있으며 구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신비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회 구원을 외칩니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행실이 구원을 보장 해 줄 것처럼 가르침으로 잘 못 된 길로 인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 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교리보다, 심지어 이단적인 교회의 사상보다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그 증거로 많은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상 교회 안에 구원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생애를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보상도 얻을 수 없는 헛된 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뉴에이지 운동이 극에 달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대표적인 프로이드는 종교가 해로운 것쯤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발전해서 실험 심리학 시대에는 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쯤으로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인간 자체, 즉 인간의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잠재력을 계발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홍수와 같이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교회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나 교제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며,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잠재력을 시험하기도 하며,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실상 교회는 뉴에이지 사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증거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사도행전 21:13)

바울은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기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가난하고 집 한 칸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 계몽을 위해 힘쓰지도 않았으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 줄 것을 구하다가 고쳐주시지 않음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분량 이상으로 높임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12:7-9)

과연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할 만한 존재들일까요? 만일 우리가 그러한 존재일지라도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십자가와 더불어 장사를 지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anzi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임이라 (빌립보서 1:20,21)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며, 그 분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하늘의 보상을 바라고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계발하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머물러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면서 가져 온 적극적 사고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털어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며,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허점많은 기독교 II

잘못된 성경관

제 1 장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제 2 장 성경은 양식입니다.

제 3 장 성경 변개가 가져다주는 결과들

제 4 장 성경 속에 들어 온 작은 누룩들

제1장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 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버리시리라(요한계시록 22:18,19)

최근 몇 년 사이에 성경으로 인한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것은 변개된 성경이 바른 성경인 것처럼, 바른 성경이 변개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동안 보아 왔던 성경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결코 성경의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의 훼손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심각한 성경 훼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24:35)

또한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누가복음 16:17)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혹 성경을 읽다가 (없음)이라는 구절을 발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영어 및 원어와 대조를 해 보면 13 구절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구절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빼 놓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역사가 13 구절이나 빼놓아도 좋을 만큼 짧지도 않고, 허술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가진 성경이 바른 성경인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몇 구절을 빼놓은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많은 단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수를 헤아려보면 약 2,200 개나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바꾸어서 다르게 번역된 것은 약 30,000 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 위에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른 진리는 결코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변개된 성경이 가져다 주는 것

우리나라는 유독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증거를 보입니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말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원래 귀신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라고 일컬어지는데 실상 영어 성경에서는 전혀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 "devil"은 당연히 마귀라고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는 사람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으로 번역이 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귀신론"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고, 지금도 속이는 영에게 미혹되어서 마치 성경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수많은 교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한일서 5:7)

아직도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은 바른 성경을 가지지 못한데서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논쟁의 결말은 또 다른 이단종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감히 이러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이나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찾아 다닙니다. 그들의 무기도 다름이 아닌 성경입니다. 어떻게 분명한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성경에 너무도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교회로부터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 성경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

그렇다면 성경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는 없었을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시도는 성경을 만드는 초기의 역사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바른 성경을 만들어 보겠다고 수없이 모여서 연구하고, 학술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도 그들 가운데 침투해 들어갔고, 이러한 시도들을 번번히 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나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9,10)

성경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번번히 실패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판권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으며, 지금도 성경을 바르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까닭에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은 원본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개역 성경을 앞에 두고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에 대하여 교회들은 오랫동안 인내해 왔으며, 이제는 전체 교회적으로가 아닌 소수 단체들에 의해 바른 성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시켜 왔고, 지금은 바른 성경을 기초로 한 몇 가지 한국어 번역본들이 나와서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성경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교회(Local church)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교단 중심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교단에서 바른 성경을 쓰도록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느 교회도 성경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원어를 뒤지고, 영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편함은 교단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코 성경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또 하나의 방해꾼

어떤 사람은 왜 처음부터 성경을 바로잡지를 았았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 올 당시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KJV(흠정역)성경을 썼는데 왜 지금은 다른 성경을 표준으로 해서 번역이 되었는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역시 바른 성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해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꾼은 다름 아닌 가톨릭 교회입니다.

처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톨릭의 사제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의 본문을 어떠한 것을 채택해야 하는가? 하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어렵지 않게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게 된다면 가톨릭은 위협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들을 번역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보존해온 그리스도인들은 가톨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성경이 그들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KJV(흠정역)은 마치 이단 종교를 가진 자들이 가지는 성경쯤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이 땅에 바른 성경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단들의 이권보다도 더욱 바른 성경을 가지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순한 양처럼 기독교회에 다가와서 서로 연합할 것을 권하고 있고, 전체 성도들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잇는 중입니다. 결코 속는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

▶ 바른 성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콘스탄틴이 거짓 개종과 더불어 교회를 그의 정치의 손 안으로 끌어들인 뒤 AD325 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들은 오리겐의 변개된 성경을 최초로 가톨릭의 성경으로 공인하였습니다. 이 때부터 실상 성경과의 전쟁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1,000 년 동안 약 6,800 만 명이 죽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단순히 루터나 칼빈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이미 지하에서 계속되고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은 그들이 보존해 온 성경을 근거로 가톨릭에 대항했던 것입니다. 결국 바른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온전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던 것은 성경이 변개되면 신앙도 변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오니 흠도가니에서 단련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편 12:6,7)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갖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 까닭은 분명히 바른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의 삶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사탄의 교묘한 술수에 노출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것처럼 성경에 집착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그들의 권위로 삼는다는 이유로 정죄를 받아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 우리의 과제들

과연 우리는 순수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잇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경과 같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자들을 봅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 것 뿐이라(갈라디아서 1:7)

이 시대는 너무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회에 속한 무리들은 수많은 지식을 열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른 성경, 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꿈꿨다 깨닫고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마저도 거짓인 것처럼 꾸며서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명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성경은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곧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한 채 환상과 계시에 의존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는 성경을 난도질하여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전자는 주로 신비주의자나 기복신앙 인들이며, 후자는 신학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신비주의적 목회자와 성경 그 자체보다는 칼빈, 알미니안, 웨슬레 등의 이름을 더 높게 평가하는 신학자들에 의해 빛을 바랜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 성경은 먹는 양식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함이니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요한복음 5:3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요한복음 6:5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위에 나열한 성경구절에서 보듯이 성경은 곧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과반수를 점령하고 있는 자유주의 뉴에이지, 애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근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교회보다 더 많은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은 언제나 말로서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나 양식을 삼고 받아먹는 자들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힘이 느껴진다면 그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과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없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양 상태와 요리법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실상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중보자이시고, 장차 우리의 신랑이 되실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의 다른 표현으로 영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 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요한복음 1:12)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 3:20)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타고난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사로잡아 이끄는 자들이 있음이니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7)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것보다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억울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구원받지 못했다면 더욱 땅을 치고 원통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현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자기 욕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도 경건의 모양(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들은 어리석은 여자(욕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해서는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딤후 3:8). 사도 바울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단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과 헛된 철학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경건의 모양(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거짓 진리를 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힘의 논리로 약한 자를 마구 정죄하고 그 일을 정당화 할 때는 어느덧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데 지혜를 가져다 주어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거짓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

부디 이 혼탁한 세대에 거짓 진리로부터 현혹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말씀을 먹는 자의 자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

"그들의 마음은 비대하여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나이다(시편 119:70)

어떠한 음식이든지 배가 부르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면 아무리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때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본래 보리떡은 매우 맛이 없는 것이지만 이미 사흘을 굶은 무리들은 맛에 관계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마 15:32-38)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기 때문에 배고픈 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가난하고 배고픈 자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단순하게 잘 사는 사람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형태의 졸부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성실함과 땀과 노력으로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매도하여 지옥 백성으로 정죄해 버린다면 성경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마저도 독약을 타서 영혼을 죽이려 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양식을 찾아 헤매듯이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양식을 찾기 위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양식을 한 번 먹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평이 많은 성도가 목사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했다고 불만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 앉아 식사를 기다립니다. 어느 가정이나 먹는 반찬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5-6 가지의 반찬에 밥을 주식으로 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찬의 가지 수가 적어서 병이 들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맛있게 먹고 난 후 건강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식탁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다 소화가 되었고 다시 양식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우리의 음식 문화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는 매 주일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구원, 영접 등 기본적인 메뉴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더합니다. 성도들은 이 양식을 받아먹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도 결코 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화가 되어서 배가 고파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받아먹습니다. 불평하거나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져 간다면 영적 상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이 갈급한 자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이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와 인격으로 자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자라면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3장 성경 번개가 가져다 주는 결과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오니 흠도가니에서 단련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이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편 12:7,8)

성경에 관하여는 이미 주님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번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좀 더 알기 쉽고, 읽기 편하게 만든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와중에 각종 이단 종교 단체들도 그들만의 성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더욱 분별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 서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보존되지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성경으로 인하여 생긴 많은 이단 집단들을 목격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성경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생겨 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 이단을 뒷받침하는 번개된 성경

우리는 근세기에 들어서 가장 왕성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성경을 들고 전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그들의 주장을 매우 논리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 본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첫 질문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는 것으로 대화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궁색하게도 "여호와"라고 대답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논리에 대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대화가 진행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들의 적극적인 접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아니요"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 어떠한 명분과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참담한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히브리어의 4 자음 문자 'YHWH'를 처음 여호와로 번역했던 미국 표준역(ASV, 1901)이 처음 나왔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의 환호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성경 '신세계역'과 동일하게 번역한 사실에 고무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성경 번역은 그들을 더욱 왕성하게 전도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번역됨으로써 한국 땅 전역에 "여호와 증인의 왕국회관"이라는 이름의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성경을 바로 잡아 "여호와"를 "주"로 다시 수정하여 쓰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은 뒤로한 채 서로 자신들의 이권에만 눈이 어두워 성경을 바로잡는 일들을 뒷전에 두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표준 새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를 "주"로 수정하여 나오기는 했지만 각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결국 보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이권과 명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자 하는 노력과 또한 그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와 증인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면 개역 성경이 지옥의 실체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증인들이 지옥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54 회(구약 31, 신약 23)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13 번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스올, 혹은 음부로 번역함으로써 여호와와 증인들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본래 음부라는 말은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 용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옥의 실체를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연옥에 대한 논리를 강화시켜 줌으로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성경 번역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기독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변개는 이단들의 논리를 정당화 시켜 주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적인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범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는 변개된 성경은 이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된 자가 없다면 결국에는 거짓 진리가 참된 지리로 둔갑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변개되고 잘 못된 성경을 바로잡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최선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변개된 성경

우리는 개역 성경의 몇몇 부분에서 명백하게 틀린 구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을 든다면 마가복음 1 장 2 절을 들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말라기 3 장 1 절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글이 번역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 사본인 바티칸 사본들이 모두 그렇게 번역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명백하게 오류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신뢰를 가져다 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말씀의 완전함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완전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자체로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령 변개된 성경의 호시라고도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제 3 의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 교회(법), 그리고 다음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종교들도 더 이상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잘 못 번역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더욱 큰 권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경이 앞뒤 문맥이 틀린 곳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성경 위에 두고 있는 권위에 대하여 더욱 명분 있게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그들의 신앙에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성경만을 최종권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한 성경이 명백하게 틀린 상태에서 그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들은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느 한 곳이라도 불신을 가져다 줄만한 오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거짓 진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성경의 변개는 믿음의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되어왔던 구절 중 하나이므로 충분히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 장 2 절의 말씀을 두고 이에 대한 두 개의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개역: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KJV: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매우 심각한 교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자칫 그리스도인들은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끌기에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의 순수한 젖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장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먹는 것이 신앙성장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역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씌으로써 마치 구원이 완성시켜 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이 완성시켜 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복음의 기초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교리들은 지금도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은 믿음에 행위를 더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제와 봉사, 그리고 전도와 헌금을 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헌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들을 부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의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행하고 있는 삶의 모양들은 말씀을 젖을 먹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들입니다. 결코 행위가 먼저가 아닌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고린도후서 11:4)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성경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는 발을 들여놓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성도들과의 교제와 봉사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설교를 한 시간 이상을 말해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교회당 문 밖을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의 머리 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우스개 소리와 일상에서 일어나는 체험담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교회 문밖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반응은 결국 성경의 변개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변개가 가져다 주는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명백한 성경의 오류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권위를 되찾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한 이 땅에 각종 이단 종교들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욱 큰 치명상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바른 성경 위에 바른 복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더 이상 변개된 성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확실히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며, 비교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4장 성경 속에 들어 온 작은 누룩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갈라디아서 5:9)

누룩은 그 존재 자체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식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을 투입하더라도 온 식물에 퍼져서 부풀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언제나 부정적인 말로 쓰여집니다. 거짓 복음과 율법 등은 언제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 온 누룩과 함께 비교가 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누룩은 바로 성경 속에 들어 온 작은 누룩들입니다. 이것들은 외관상 그리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을 더해가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뒤로 하더라도 신약성경은 약 1900 년 동안 가톨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을 중심으로 번역하여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1611 년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영어로 번역한 KJV 는 영어권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약 300 년 간을 써왔고, 그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과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1901 년 가톨릭 성경을 기초로 미국 표준역(ASV)이 번역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질된 성경은 교회 안에 각종 누룩들을 퍼뜨림으로 인하여 교회를 파괴시키기 시작했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가장 큰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은 바로 이 가톨릭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한국적인 사상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날 교회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침병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 이토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 속에 침투해 들어 온 작은 누룩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사탄의 존재를 숨김

만일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의 이사야서 14 장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구절 하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을 바꾸어서 계명성(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분명하고 명백한 구절을 바꾸어서 사탄의 존재를 숨기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이사야 14:12)

KJV: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지를 이처럼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그의 이름을 감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타락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요한계시록 22:16)

계명성(새벽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개역성경은 사탄 루시퍼를 교묘하게 예수님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의심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에 누룩이 되어 자라게 된다면 우리는 걸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뉴에이지 사상가들은 사탄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타락했다고 주장하며, 사탄주의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탄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여러 구절들을 변개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요한 계시록 12 장에서 사탄의 정체가 용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성경에 35 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개된 성경은 뱀(신명기 32:33), 이리(욥기 30:29), 시랑(시편 44:19)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사탄의 정체를 감추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분명히 이 성경은 사탄의 작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귀신은 있는 것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물음에 대하여 언제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목회자가 되면서 이 질문에 대하여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있다고 믿어지게 된다면 성경을 모두 고쳐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의 수명을 120 년으로 규정하여 그 안에 죽게 되면 세상을 떠돌다가 120 세가 되어 결국에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실제로 귀신이 들렸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실상을 보게 함으로서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귀신이라고 기록해 둠으로써 그들의 명분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은 너무도 명백하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귀신은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짓 전도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귀신의 존재는 속이는 영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말세의 끝에 이르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역성경을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 하는 것이 아니니(고린도전서 10:20)

KJV: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으로 드리는 것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

약 2000 년 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왔던 순수한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사람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

이러한 귀신에 대한 사상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을 포함한 동양권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누룩이 되어 많은 이단 종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속 신앙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제사"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본래 제사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sacrifice'인데 이 단어의 뜻은 '희생물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인 '제사'라는 것은 조상신에게 섬김의 예로 드리는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주는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사라는 용어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제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지 상을 차려 놓고 그들의 신들이 와서 먹고 자신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의미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제사'라는 단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 우리가 신(神)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인가?

지금도 많은 목양자들을 배출하는 학교를 가르쳐 신학교(神學校)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여기서 신(神)이라는 말은 '귀신'을 말하는 것으로 매우 무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별다른 단어를 찾지 못하고 이 이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으로 표현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역: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세기 1:2)

KJV: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활동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는 '물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성령님(The spirit)이라는 단어가 28 회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역 성경에서 단 한번도 성령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성경에서 성령님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경위가 어떠한 것일까?

물론 사탄은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신약시대에서만 활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축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 역시 무속 신앙으로부터 나온 성경 번역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이 내린다'는 강신(降神)의 개념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약의 귀신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적 세계의 질서를 혼돈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개념을 더욱 축소시켜 예수님이 못다한 사역을 대신하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시키는 이단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경이 가져다 주는 피해들이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 범위를 축소하려는 사탄의 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한일서 5:7)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신약시대로 국한하려 하지만 실제로 구약시대에도 왕성하게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개역성경의 어느 곳도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배워왔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임을 다시 한 번 발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과연 우리는?

우리는 위에서 개역성경이 지극히 한국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번역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용어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피해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작은 누룩이 성경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기독교회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들고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교회조차도 그들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성경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읽혀져 오고 가르쳐진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들어 이러한 성경의 논쟁에서 어떠한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성경만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에 가졌던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전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허점많은 기독교Ⅲ

교회 안에 들어 온 누룩

제 1 장 세례

제 2 장 사도신경

제 3 장 새벽, 철야기도회

제 4 장 중 탑

제 5 장 십자가

제 6 장 니콜라주의

제1장 세례

이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니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보시더니 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3-17)

세례냐? 침례냐? 우리는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당연한 진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침례가 가져다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침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면 결코 세례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례가 가져다 주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바른 믿음을 갖는데 유익을 얻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 세례를 뜻하는 말인 Baptism 의 뜻은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표기에 있어서도 세례라는 말의 표현보다는 침례라는 말로 표기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있어서 기억될 의식이 있다면 하나는 만찬이고 또 하나는 침례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침례의식이 많이 변질되어 있으며, 심지어 행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침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 그 의미를 깨닫고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요한의 침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더라.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르단 강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마 3:4-6)

요한의 침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침례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가 침례를 베풀기 전까지는 침례의식이 없었는데 그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깊은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복음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대언자로서 정죄의 침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주는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의식으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심판의 침례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이 후로

다른 의미에서의 침례를 베푸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베푸던 심판의 침례와는 의미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마 3:11)

이는 요한 자신이 정죄의 침례만을 베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요한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받으시는 침례의식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침례를 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마 3:15)

예수님의 침례를 행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야 모든 죄인이 의로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로다(요 1:29)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요 1:33)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기 전에는 요한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없었으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이후에는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어린양을 죄 헌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사람들이 태우는 헌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죄 헌물로 삼을 것이요(레 4:32-33)

그가 또 죄 헌물로 수소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죄 헌물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매(레 8:14)

아론이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레 16:21)

요한은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 사가라의 아들이자 제사장이 되기 위한 나이인 30 세를 넘긴 30 년 6 개월째 되는 자로서 그가 침례의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이 의식을 집행할만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였다면 예수님의 침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에 그분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요 4:2-3)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에게 죄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정죄의 침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만일 행한다면 죄를 다시 돌려놓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더 이상 정죄의 침례를 베풀 수 없도록 한 것도 이미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기 때문이며 이미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 10:4)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해박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고(행 18:25) 에베소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성경도 보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해 원인을 물었더니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고,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후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행 19:1-5). 그들은 결국 두 번의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 구약에서의 침례의 그림자

노아시대의 홍수는 옛사람이 홍수와 함께 장사되고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벧전 3:20-21).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오는데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강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모세라는 말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역청으로 칠해진 갈대상자 안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역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물에서 건짐 받았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길을 가로지르고 살아나는 침례의 모형입니다(출 14:21, 수 3:17)

▶ 신약에서의 침례의식

초대교회의 성도의 수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침례를 받은 자의 수만을 헤아렸습니다(행 2:41). 그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것은 언제나 침례를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받는 사람 3 천명에게 침례를 주고(행 2:41),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행 8:12), 또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동행하다가 침례를 준 후에야 헤어지는(행 8:35-39)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아나니아의 집에서 눈을 뜨고 침례를 받고(행 9:18),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는 침례를 주고(행 10:47-48), 루디아도 저와 그 집이 침례를 받고(행 16:15), 빌립보의 간수의 집도 침례를

받았습니다(행 16:33).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구원과 동시에 침례를 받았으며, 그들만을 구원 얻은 숫자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 잘못된 침례 의식

서기 2 세기 경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침례가 구원이라는 이교사상을 퍼트려 기왕이면 일찍 구원을 받도록 하자고 해서 유아세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산되어 가톨릭은 426 년에 유아세례를 법으로 정하고 어거스틴, 칼빈을 거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행하고 있는 매우 잘못된 유전인 것입니다.

또한 침례가 아닌 세례(물을 뿌리는 것)도 콘스탄틴이 죽은 다음 그의 시체에 뿌리는 것이 시초였고 거듭난 경험도 없는 신하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잘못된 침례에 대하여 말하는 재침례 성도를 약 5 천만 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침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원의 간증입니다(롬 6:3-5). 만일 이것이 잘 못 행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세례가 가톨릭 교회가 낳은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베푸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까닭에 우리가 죄의 몸인 육신을 장사 지내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이 담긴 침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게 된다면 가톨릭 교회의 뿌리는 완전히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남은 죄들을 씻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회들이 이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교 개혁 이후에 나온 집단들이기 때문입니다. 루터, 칼빈, 쾰링글리, 웨슬레 등 많은 이들이 가톨릭과 성공회 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지만 가톨릭의 유산인 세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오늘날의 교회는 또 다시 에큐메니칼을 통하여 또 다시 가톨릭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의 차원을 뛰어 넘는 것입니다.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침례가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침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의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세례"라는 누룩을 경계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2장 사도신경

사도신경만큼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있어서도 사도신경은 심지어 이단 판별의 잣대로 사용될 만큼 각 교파 교회들의 자존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는 반대로 복음적인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교회 내에서 암송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부터 떠난 교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까닭에 사도신경에 관하여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우며, 자칫 많은 이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선교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약 100 년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기보다는 현재 교회의 상태를 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선교센터 내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는데, 그곳에서는 전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아해진 나는 담당 선교사님에게 여기서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외우도록 했지만 그들이 전혀 암송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신경은 가톨릭의 신앙고백이므로 외우는 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배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철저한 신앙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계 미국인 복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도신경"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미국 내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군데서도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 한군데 외우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눈이 멀 수가 있을까? 하고 통탄해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있는 분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보다도 더욱 배교의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정신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장 중심의 교회 운영은 결국 많은 쓴 뿌리들을 교회 내에 심어 둔 채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교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과 전통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전통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버려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성경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도 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도신경이 AD55 년에 12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독교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요약된 내용을 성령의 영감으로 베드로가 처음 한 구절을 기록하자 차례차례 한 구절씩 더하여 오늘의 사도신경을 완성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D 4 세기의 루피너스(Rufinus)가 "사도신조 주석"을 쓰면서 사도신조를 열 두 사도가 한 줄씩 썼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된 것으로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도신경 곧 사도들의 신조(the Apostle's Creed) 는 그 이름과는 달리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준 신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베드로의 신앙고백(마 16:16,28:19)을 기초로 한 단편적인 신조가 2 세기부터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로마 가톨릭 교회들 내에는 "신앙의 규율"(Rule of Faith)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것들의 목적과 그 용도는 대략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교회의 초신자들의 훈련을 위해서였으며, 둘째는 침례 받을 교인들에게 침례문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고, 셋째는 이단 판정의 기준을 위함이었습니다.

지금의 사도 신경의 모체가 된 것은 서기 400 년경의 라틴 어로 된 [로마교회 구신조](the Old Roman Cree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신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도 신경은 [로마교회 구신조]가 아니고 그 이후 300 여 년 동안 서방의 여러 교회들이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신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도신경과 유사한 후기 사도신경은 AD 6 세기나 7 세기에 가서야 나타나는데, 당시에 초기의 사도신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몇 구절이 추가되었는데 즉, "지옥에 내려가셨다가"(He descended into hades)라는 구절이 추가되었고, 교회라는 단어 앞에 "우주적 혹은 가톨릭"(catholic)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으며, "성인들의 교통(the communion of saints)을 믿사오며"라는 구절, 그리고 "영원한 생명(the life everlasting)을 믿사옵나이다."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구절들은 프랑스 지방이나 북아프리카 지방의 역본들로부터 수집되어 추가된 것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신경은 8 세기에 현재와 같은 언어로 확정되었고, 12 세기에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공적으로 인준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 교회에 의해 핍박을 받아왔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루터나 칼빈(칼뱅)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과 같은 일컬어지는 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그들에 의해 세워진 초기의 교회들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교회 내에서 암송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리적인 허점과 신학적인 많은 문제들에 의하여 지금은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이 암송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내에서 암송되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가톨릭과 연계하여 에큐메니칼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가톨릭의 교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유래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도신경은 가톨릭의 교리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영문 사도신경과 한글 사도신경의 차이

사도신경의 전통적인 영어 본문(TRADITIONAL ENGLISH VERSION)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or from thence he shall come quick to judge the live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우리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두에서 영문과 우리말 사도신경을 동시에 적어 놓은 것은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혹은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을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첫째로 다루어 볼 내용은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본디오 빌라도가 결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어날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비로소 보이시니(마태복음 16:21)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만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수제사장(首祭司長)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어나리라, 하시니라(눅 9:22)

예수님은 수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된 것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제사를 드릴 권한이 있는 그들에 의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물이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로다(요 1:29)

만일 본디오 빌라도, 즉 이방인에 의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면 그분은 메시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아 뿌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제사장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들에 의해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2) he descended into hell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he descended into hell'라는 말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의도적으로 빼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실만한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멸망 당할 자들에게 자신이 구원할 자로서 세상에 왔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못지않은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이 말을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임이라(마 12:40)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으니(벧전 3:19)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는 명백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심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미 타락한 천사들과 심판 받을 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간으로 삼일 만에 이루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3) 거룩한 공회

복음적인 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며, 매우 심각한 누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catholic'이라는 단어가 우주적 혹은 보편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이지만 어떤 사본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되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는 고유명사로서 로마 가톨릭교회를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은 이것을 교묘하게 감추어 '거룩한 공회'라는 말로 감추어 보려고 하지만 공회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외에는 쓰여진 적이 없으며, 교회와는 매우 다른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도들의 눈속임을 위한 단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산헤드린 공회가 교회를 지속적으로 핍박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말의 표현은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교회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교는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뿐입니다. 그들은 교황과 교회, 그리고 성경을 동일한 권위에 두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거룩한 공회(혹은 교회)....를 믿사오며, 즉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고백을 지속한다면 이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이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이 말의 의도와 뜻이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당연히 "거룩한 카톨릭(천주)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당의 건물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거룩한 공회(가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예배 시간마다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영문 사도신경에는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Father'라는 말을 삭제하여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현재 우리말 사도신경이 번역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불손한 의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더욱 성경과 관계가 없거나 변개 된 상태에서 암송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늘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된 진리로 인도하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가톨릭 교회를 위한 고백서인 사도신경

우리는 사도신경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 있는 누룩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카톨릭교회의 중요한 교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성경의 내용을 멋지게 포장해서 가톨릭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매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교리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현재 성경을 최종, 혹은 유일한 권위로 삼고 믿고 있는 교회들은 모두 이단이고, 반대로 현재 이단으로 규정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로 공인할 수 있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이 거짓 진리를 교회 안에 심고 있습니다.

누가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사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천지, 즉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 1:1)

왜 성경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든 창조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기본적인 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삭제시켜야만 하고, 또한 심각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엡 3:9)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이고, 또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음이니이다, 하더라(계 4:11)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자 다른 존재라고 주장하는 삼신론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격이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 5:7)

많은 성경들이 이 구절을 성경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리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절을 삭제시키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는 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Jehovah(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ord(주)"가 예수님의 속성만을 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지 않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교리가 이단 판별의 기준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 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이 교리의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으로부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동정녀

우리는 영문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born of the Virgin Mary'라는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 KJV 를 쓰는 분이라면 'Mary'에 대하여 단 한 번도 'Virgin'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번역 된 것과 같이 '동정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임을 말하는 것이며,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평생 처녀의 몸으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녀에 대하여 'virgin' 즉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ehold, a virgin shall be with child, and shall bring forth a son, and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being interpreted is, God with us(마 1:23)

To a virgin espous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 virgin's name was Mary(눅 1:27)

마리아는 우리가 같은 죄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 처녀였으며, 이후에는 요셉과 더불어 자녀를 낳았던 보통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일반적인 성경의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마리아가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들을 기독교회에 누룩으로 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서 암송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마리아가 보통의 여자였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가톨릭 교회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해야만 하겠다고 한다면 "동정녀"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조금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Virgin(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virgin(처녀)"였습니다.

3)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 속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상은 'the communion of saints' 즉 우리말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번역된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saints' 즉 성도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 내용을 쓰게 된 것은 아직도 죽은 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가톨릭의 교리를 뒷받침 해 주는 중대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바로 천국(낙원)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기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로가 필요한데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공로가 모자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이미 연옥에 가 있는 자들 중에서 공로가 많은 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적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과의 교제(통공)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다면 이는 로마 가톨릭의 연옥을 시인하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죽게 되어 있으며, 그 뒤에는 바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옥의 교리를 받아들이거나, 죽은 뒤에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고, 굳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지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의 사업장과 같이 변해버리고 말 것이며, 진리는 자취를 감추고 그들은 구제와 봉사에만 열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일의 증거들입니다. 그들이 연옥의 교리를 버리지 않는 한 참된 진리 안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8-9)

▶ 왜 암송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이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전통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 교회 안의 의식인 사도신경

위에서 보았듯이 사도신경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회에 들어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거짓 교리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교회 안의 의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전의 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성도들에게 마치 진리를 요약한 것쯤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거짓 교리로 가득한 사도신경을 교회 안의 의식에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도신경이 정작 강단의 설교와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더욱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먼저 암송해 놓고 정작 다른 교리의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광경이 연출되었겠습니까? 사도신경은 교회의 의식에서 당연히 버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와 설교자들을 위해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암송하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

교회 안의 의식들을 통하여 암송하는 것들은 이미 익숙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가톨릭의 전통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좀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의 예배 의식을 갖추어야만 했고, 지금은 마치 기계와 같이 형식에 맞춰 가장 거룩하게 보일 수 있는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예배의 형태가 기독교회 안의 중심에 들어와 지금은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회를 구분하기 힘들만큼 형식에 의존하는 예배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데, 그것은 의식을 위하여 설교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독교회에만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일수록 그 의식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들은 더욱 경건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포장하여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더욱 많은 내용들을 암송할 것이며, 그것이 매우 효력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문과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암송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마태복음 6:7)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단 그 내용이 불손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암송되어지는 사도신경 외에 주기도문, 그리고 각종 고백서 내지 형식적인 기도들은 주님이 하지 말도록 경고한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와는 구별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마치 주문처럼 암송하는 일들은 사라지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 3 장 새벽, 철야기도회

기도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말이나 글을 통해 쓸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많은 설교와 글들을 써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러한 기도생활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힘을 기울입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모아두고 기도회 등의 모임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와의 관계에서 좀 더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의 방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마태복음 6:6)

그러나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주제인 기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 기도가 너무도 형식화되어 있고 실제적인 의미를 너무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거나 믿음이 없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보다 냉정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새벽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 드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으로서 묵상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시간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러 외진 곳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외진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마가복음 1:35)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신 시간이 새벽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비록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새벽은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경건하게 사는데 있어서 유익을 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말로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벽기도를 드리느냐? 마느냐? 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새벽기도의 잘 못된 관행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에 몇 천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찾는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실정이

어떠하든 간에 많은 교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벽기도회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새벽기도회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것이 한국의 교회가 부흥을 가져 온 이유이며, 또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자랑거리가 될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 새벽기도회의 역사에 대하여 논하기를 과거 농촌지역에 어떤 목사가 전기 공급되지 않았을 시절에 전기 불이 없기 때문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자 혼자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점차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이러한 소문이 점차 전해지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복을 빌기 위해 지성을 드리는 일들을 주로 새벽에 했었는데 이러한 관습이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벽 기도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바벨론 종교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 즉 세계의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태양신을 주로 섬기고 있는데, 태양은 감추어져 있다가 새벽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관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대부분은 새벽에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오늘날 새벽기도회의 형태로 변질이 되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모임에서는 새벽기도회를 하는 것은 이방 종교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므로 매우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와 같은 논리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숭배나 동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이든지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새벽기도회를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새벽기도회는 주일 예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새벽기도회만 없다면 목회가 결코 힘들지 않다"고 고백할 정도로 새벽기도회가 목회자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작 자신들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의 목회자는 능력이 없는 목회자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한국 교회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모습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무리를 지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이 모인 곳으로 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새벽기도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 기도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은 너무도 성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빌며, 그들 자신의 정성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벽기도회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들은 백일 기도, 천일 기도를 시키면서 헌금을 하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벽기도회를 하면 모든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의 기도가 하루의 모든 기도를 대신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 후로는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모여서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데살로니가전서 5:17)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새벽의 한 시간만을 호흡하고 나머지 시간은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기도회가 하루의 모든 기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밥을 지으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기독교회는 새벽기도회가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가졌듯이 이제는 참 된 경건의 삶을 위해 주님과 만남을 위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금요 철야 기도회

우리는 사실상 철야 기도회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성경 구절들을 찾아 볼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구절은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명의 제자들이 모두 졸고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들어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을 철야기도회를 하는 날로 정한 것은 이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삼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듯이

삼일 밤낮이 지난 후에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은 금요일 저녁이 아니라 수요일 저녁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을 온전히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수요일 기도회나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이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더욱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금요일 철야 기도회를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금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규정하고, 금식을 하며,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회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관행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밤을 새워가며 성도들이 모였던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밤중까지 말씀을 선포하다가 유두고가 하는 젊은이가 졸다가 삼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를 다시 일으키고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 빵을 나누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사도행전 20:11)

사실상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웠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는 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웠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일정한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서도 밤을 새워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도록 훈련을 시킨다면 이것은 더욱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우리가 철야기도회의 현장에서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기적과 능력을 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분명한 복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생명이 없다면 그들의 응답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속이는 자들이 이 세대에는 존재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바로 이처럼 생명 없는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을 보면서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무모한 기도회를 피하고 진정한 기도의 모범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치며, 또한 육신적인

기복신앙을 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도우며, 생명이 있는 성도로서 주님과 호흡하는 일들을 위해 바른 기도의 모습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나 금요 철야 기도회는 기독교회 안에 이미 관행처럼 되어져 온 모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각종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결코 형식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쉽 없이 기도하는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4장 종 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자 하고 이에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널리 흠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니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금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세기 11:1-9)

종탑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 역시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교회당의 종탑은 이미 교회의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종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과연 교회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종탑이 성경적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마땅히 철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 모든 종교의 파생지 바벨론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현대와 같은 조직적인 종교의 시작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종교가 아담과 이브가 나뉘었으므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숭배하고 그에 따르는 의식과 형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한 때를 추적해 본다면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었더라 그가 주 앞에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 니므롯같이 강력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창세기 10:8,9)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진행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보신 주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함으로서 결국에는 그들을 흠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흠어진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갔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흠어져서 먼저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탑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방종교의 특징인 행위 구원

바벨론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그들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심판을 면해보겠다는 자세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이방으로 흩어진 모든 자들이 가진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사실을 통하여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의로 자신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2:8)

탑을 세우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은 모두가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령 불교에서도 도를 닦아 마음이 선함에 이르게 되면 극락(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탑을 세우고 있는 종교가 불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우고 있는 탑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탑의 기원은 오직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탑들은 불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대의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탑이 상징하는 것은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탑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얻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 행위 구원의 본거지 가톨릭

주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가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위해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가진 권력과 재력을 동원하여 많은 진실한 교회들을 그들의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수 십 세기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인지, 주님의 교회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혼합된 모습으로 교회들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중의 하나가 바로 종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근세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는 무수한 핍박과 함께 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리저리 피해가며 그들의 신앙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교회당 건물을 따로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탑을 세운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사제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의식과 형상들은 그대로 둬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또다시 종교 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시작부터 막강한 권력과 물질적인 힘을 바탕으로 교회당을 지어왔습니다. 그들이 교회당을 그토록 엄청난 규모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교리 가운데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중세기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높은 종탑을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들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며, 그토록 교회당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려는 그들의 술책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돌아보면 가톨릭은 점차 종탑을 없애고 지붕도 낮게 만들어 가는 추세인데 반하여 오히려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기독교회들은 더욱 높이를 더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사탄은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혹에 넘어간 무리들을 보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도 가톨릭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 오벨리스크

"길고 끝이 뾰족한 사각 돌기둥으로, 태고의 언덕을 상징하는 헬리오폴리스의 벤벤석에서 유래되었다. 피라미드의 원형이기도 한 벤벤석은 태양빛이 최초로 비친 장소로 여겨지는 기념물이며, 헬리오폴리스를 중심으로 기원전 3000 년경 부터 숭배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오벨리스크는 아부 구랍에 있는 제 5 왕조 니우세레의 태양 신전에 건설된 것이다. 고왕국 시대에 조그만 오벨리스크들이 무덤 입구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대규모의 오벨리스크는 신왕국 시대 신전 입구인 탑문 양 옆에 쌍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오벨리스크는 하나의 기둥인 만큼 단단한 화강암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집트 남부 아스완의 한 채석장에는 길이 42m, 무게 1200t 의 미완성 오벨리스크의 잔해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오벨리스크는 그리스어로 '사냥창' 또는 '작은 쇠꼬치'를 뜻한다. 신전 입구 양쪽에 세워져 있던 오벨리스크는 태양을 상징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오벨리스크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종탑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가톨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오벨리스크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과 워싱턴 D.C, 그리고 런던 광장에 각각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고대로부터 태양신으로 숭배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조형물이 가톨릭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 안에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해 온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이 필요했고, 배교한 무리들을 모아서 오늘의 가톨릭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한

것이라고는 기존의 로마 종교에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마리아, 교황, 사제,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구원하는 한 사람에 불과한 분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광장 안에 높게 세워져 있는 탑은 그들의 신앙의 근원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를 순례한다고 다니면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게 세워진 종탑의 위용을 보면서 장차 지신들도 그와 같은 교회를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진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속이는 것이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아래서 웃고 있다면 우리는 지나간 순교자들의 피를 비웃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언제나 말과 글을 통하여 전해 놓고 고민하는 것이지만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종탑은 세워져 있지만 건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는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탑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매우 이단적이고 사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종탑이 주님의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의 기원이 건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낳은 열매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을 숭배하는 집단들의 조형물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고는 건전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더러운 짐승들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버리고 순종했을 때, 고넬료의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경으로 다시 한 번 조명해 보고, 또한 역사를 추적해서 근원을 돌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 5 장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고린도전서 1:23,24)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만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이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분명히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너무도 십자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못 이해한다면 분명히 그의 신앙도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디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한 건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 온 십자가

우리는 어디를 가도 다양한 십자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높은 종탑 위에 세워져 있는 붉은 십자가의 모습들과 사람들의 몸에 걸려있는 귀걸이, 목걸이 등에서 십자가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밀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형상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이 세워지면 당연히 십자가를 높이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라는 표시로 만들어진 집 문에 붙여진 교패마다 어떠한 형태이든 십자가의 모양이 교회의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들여다보면 많은 십자가 모양의 그림과 장식품들이 이곳 저곳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큰 믿음 위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교회가 십자가를 경히 여기면 혹시 이단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만큼 친밀하게 다가와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형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종교에나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십자가가 결코 기독교회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이고 핍박했던 가톨릭 교회는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십자가 문양을 그들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자가 모양을 변형시킨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교의 사제 복장에서도 십자가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모양이 어느 종교에서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이었던 탐무즈(Tamuz)의 이름 맨 앞글자인 'T'로부터 시작된 형상은 앵크 십자가와 그 외 다양한 모양의 십자가로 변형을 거듭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다양한 십자가의 모양들을 가진 종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가 결코 기독교의 상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출애굽기 20:4-6)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가지지 말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셔도 결코 어떠한 형상을 만드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음을 종교로 바꾸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많은 경로들을 통하여 십자가를 우상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령 과거에 드라쿨라와 같은 영화는 악한 영들은 십자가 형상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와 능력을 가진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는 교회 안에 들어 온 심각한 누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탄 숭배자들과 십자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 숭배자들은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에 가슴에 십자가를 새겨 넣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또한 의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의 복장도 가슴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경배의식을 취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십자가를 상징으로 여기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십자가는 신비주의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종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말씀만이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방송을 통해서 록(rock)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때로는 문신을 새긴 상태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기독교를 증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때로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자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붙인 그들의 귀와 목, 그리고 몸에 간직한 채 저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래 전부터 십자가는 사탄 숭배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악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나치 독일의 상징이었던 변형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 히틀러가 가톨릭 교인이었으며, 그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를 통합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당시 새시대 운동의 상징이었던 크로바 꽃잎 모양의 네 잎사귀 십자가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불교에서도 사용되는 신비주의 상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앞세워 600 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학살시켰고, 승승장구하며 유럽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영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콘스탄틴 황제가 환상 중에 보았다는 십자가 모양을 군인들의 방패마다 붙이도록 함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가 이처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지금 모든 기독교회들에 심어 놓고 있습니다.

▶ 가톨릭교회가 심어놓은 누룩인 십자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상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던 루터 이후 많은 가톨릭 사제들이 가톨릭에서 나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서 기독교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결국 위기를 맞게 되었고, 각 국가별로 완전히 가톨릭에서 분리하여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숨어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부터 나와서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고,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각종 의식과 형상들은 그대로 둬으로써 십자가를 포함한 각종 사악한 교리들을 담은 것들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악한 교리를 담은 형상과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몰아넣는 현상들을 봅니다. 사실상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를 세우지 않거나, 사도신경을 하지 않거나,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정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는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복음적인 교회가 많이 있다는 미국에서조차도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미국의 교회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러한 미국의

모습들을 보면서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쓰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교회들의 대부분이 가톨릭 교회의 영향권 아래 있는 유럽의 교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전통과 의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톨릭과 전혀 다르지 않는 형태를 가진 채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 더욱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오랫동안 십자가를 그들의 형상으로 삼아왔던 가톨릭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어떤 전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cross)를 나무기둥(stauros)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적인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나무 기둥이 십자가 모양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이라(갈라디아서 3:13)

바울은 신명기 21 장 23 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무(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매우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 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29)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겁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이보다도 더욱 큰 위협을 얼마든지 받으셨고, 자신의 입으로 친히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한복음 18:11)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고 말함으로써 아직 잔을 마시지 않았음을 암시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은 언제 마시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잔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마셨습니다. 이 잔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은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죄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몸을 외면하실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에서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말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버리지 말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신 몸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이상 더 이상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가 결코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을 못박은 곳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날까지 신비주의 종교들과 저주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스럽게 여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 형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십자가 형상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매우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가 과거의 오랜 편견들을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장 니콜라주의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콜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요한계시록 2:6)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요한계시록 2:15)

니콜라주의라는 말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결코 익숙한 말이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있어도 생소한 단어로 인식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단어는 극히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매우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밧모 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안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책망할 때 쓰여진 말입니다. 사실상 "니콜라"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만한 어떠한 내용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니콜라 당, 즉 니콜라 주의가 무엇이며,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가 사람이든 파당이든 관계없이 그 뜻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복하다" 혹은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니카오"라는 말과 "평범한 사람(교회 용어로는 평신도)"을 의미하는 "라오스"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로서 이 말을 정리하면 "평신도를 지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니콜라주의의 역사적 배경

우리는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쓴 편지에서 니콜라 당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교회에서는 "니콜라 당의 행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니콜라 당의 교리"라는 말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이들은 교회의 역사를 구분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기간은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A.D100 년 까지를 말하며,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는 기간은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A.D325 년~500 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대주의에 근거하여 니콜라주의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초대교회(에베소) 당시에는 "행위들"에 불과했던 니콜라주의가 "술한 결혼"을 의미하는 버가모 교회 시대, 즉 카톨릭 교회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A.D325 년 이후에는 이른바 니콜라주의, 즉 계급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로 자리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 시작부터 성직에 계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신부→주교→대주교→추기경→교황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제도가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로 일컬어지는 교회들조차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대교회의 사도권을 계승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계급주의는 결코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며,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가톨릭의 유산입니다.

▶ 니콜라주의가 낳은 유산들

우리는 니콜라주의가 단순히 목회자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심각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식은 대부분 이러한 니콜라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목도(예배의 부름)

대부분의 교회 의식에는 예배시간 전에 "목도"시간이 있습니다. 이 목도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목회자가 성삼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목회자가 예배의 부름이 없더라도 그곳에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가 주님을 모실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자체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 어느 때이든지 그분의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 가운데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

#교독문

우리는 사회자와 회중이 성경을 서로 교독, 혹은 윤독(돌아가면서 읽는 것)하면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동기 자체가 그리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톨릭의 의식에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독문은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찬송가 뒤에 부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독문은 사회자(대부분 목사)와 회중을 구별하여 읽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더욱이 각 절기와 시기에 맞게 편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가톨릭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회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과거로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목회자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주님 편에서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독문과 같은 것들은 사실상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니콜라주의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축도

아마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가장 뒷받침해 주는 의식이 "축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으며 오직 목사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 않더라도 "축도"만 받으면 모든 것을 모든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축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고린도후서 13:14)

이것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문안인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성도에게 매번 동일하게 말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이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의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 제시된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문안 인사를 기초로 만들어진 축도가 더 이상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욱이 기복주의 신앙이 대부분의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축도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안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라는 직책입니다. 그가 아무리 소명을 받고 신앙적으로 탁월하다고 인정을 받았더라도 교단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전도사"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목사"와 "전도사"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물론 교단에서 행정적으로 분명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역과 직결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접어두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흥미롭게도 목사는 축도를 할 수 있고, 전도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다른 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을 목사에게만 제한해 두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외 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축도"는 성경에도 없는 것이며, 사악한 교리가 낳은 열매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잘 못된 길로 인도하는 위험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자리

그렇다면 교회는 질서 없이 누구나 목사의 일을 할 수 있고, 아무나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높고 낮음도 없고, 한 형제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목회자들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목회자는 "은사적"으로 구별된 자입니다(로마서 12:1-8, 고린도전서 12 장, 에베소서 4:7-12). 이 말은 곧 목회자는 주님으로부터 그 소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종 됨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해 왔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사역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목회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성도들을 잘 다스려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니콜라주의, 즉 계급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목회자는 한 지역교회를 다스리도록 부여된 직분(디모데전서 3 장, 디도서 1-2 장)임으로 성도들은 마땅히 한 교회를 대표하는 자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가 비록 정치적인 지배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감독으로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직분을 맡은 자임으로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너희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기를 마치 자기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같이 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브리서 13:17)

젊은 사람들과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낮추어 장로에게 순복하고 참으로 다 서로 복종하여 겸손으로 옷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베드로전서 5:5)

▶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사역에 전념하리라(사도행전 6:4)

사실상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부여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 존중 받거나 권위를 찾으려 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목회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적인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기꺼운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베드로전서 5:1-3)

사실상 권위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위하여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 가는 것이지만, 영적인 권위는 먼저 섬길 줄 알고 헌신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주의는 구조적으로 권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영적 권위는 오히려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그 권위를 높여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니콜라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사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권위를 찾으려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러한 니콜라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그들의 은사와 직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 섬긴다는 자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누룩들

제 1 장 성탄절

제 2 장 부활절

제 3 장 추수감사절

제 4 장 사순절

제1장 성탄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짝이 맞지 않는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으며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한 몫을 나누겠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스스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전능자 주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8)

전통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다면 바로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기독교회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때로 성경보다 더욱 성도들에게 인식되어 분명한 거짓복음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바른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여 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성탄절(크리스마스)은 가장 사악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사탄이 기독교회에 뿌려놓은 누룩 가운데 최대의 결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인들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가장 큰 절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되는 가를 바로 알고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2월 25일은 과연 어떤 날인가?

유감스럽게도 이 날은 기원전 약 3000년 경 오시리스와 이시스 여왕이 통치했던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시리스가 죽은 후 이시스 여왕은 그를 영적인 것으로 삼는 교리를 선포하였고, 그 후 자신의 생일이었던 12월 25일에 그의 아들 호러스가 태어났는데 그녀는 그를 오시리스가 환생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축제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세대를 걸쳐면서 후에 페니키아 인들로부터 '바알'이라는 태양신 이름을 받게 되었고, 대홍수 이후 이러한 거짓된 체제가 바벨론에 재도입되면서 '어머니와 아기' 사상이 우상 숭배의 주된 사상이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아에서는 씨벨레(Cybele)와 데오이우스(Deo)로, 로마에서는 포르투나(Fortuna)와 쥬피터(Jupiter)로 불리워졌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로마의 이교도들은 교묘하게 이용하여 기독교회에 누룩으로 심었으며 4,5 세기에 마돈나(Madonna 성모 마리아)와 '어머니와 아이' 사상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태양신'과 복음을 결합시킨 가톨릭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백성들 가운데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대부분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 왔던 것입니다. 다만 당시 가톨릭의 배교에 대항하여 그들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거짓 교리를 분리해 낼 수 있었습니다.

▶ 과연 이 거짓 전통을 몰아 낼 기회는 없었는가?

사실상 교회를 통해 이 사악한 전통을 몰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아마도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개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클리프나 후스 등 앞 선 순교자들에 의하여 참 복음은 그 빛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루터 시대에 이르러 그 복음이 빛을 드러내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 빛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빛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기본은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었던 가톨릭의 전통들은 그대로 둬으로써 오늘날까지 이 거짓된 전통들은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는 교회들조차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없애기 위해서 수 없는 시도를 했지만 일시적으로 변화를 보일 뿐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교회의 전통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 현 세대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점차 잘못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는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정다운 친구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각종 캐릭터 등을 통하여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는 겨울이 되면 어느 곳이든지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전설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그는 실제로 4 세기 경에 생존한 로마 가톨릭의 주교였습니다. 대영 백과 사전에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Myra 의 주교 성 니콜라스는 12 월 5 일에 희랍인들과 라틴인들이 추대한 성자이다... 가난한 한 시민의 세 딸들에게 남몰래 지참금을 준 그의 전설은 성 니콜라스(St. Nicholas)의 전야(12 월 6 일)에 비밀스럽게 선물들을 증정하는 오랜 풍습의 기원이며 이 날이 크리스마스의 날로 이전되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연합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통하여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애야.. 오늘 저녁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슬그머니 양말(선물주머니)에다 선물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연히 그들의 거짓말은 탄로가 나고 맙니다. 즉 대부분은 산타클로스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억과 즐거움이라는 명목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자기 몫으로 받으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계 21:8)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바깥에 있으리라(계 22:15)

사소한 거짓말, 즉 별로 거짓말로 인식되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경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것일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큰 범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결코 속거나 이야기 거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캐럴 송

오늘 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는 캐럴 송이 태양신을 섬겼던 자들이 악한 영을 불러내는 음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실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태양신 숭배자들의 모임인 드루이드(Druid)교도들은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에 모여서 지금의 캐럴 송과 흡사한 곡조와 내용으로 축제를 합니다. 또한 가스펠 송(Gospel song)으로 불려지는 오늘날의 CCM 음악도 이곳으로부터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시 사탄의 최고의 무기가 음악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복음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캐럴 송이라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찬송가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밤새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위의 내용에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아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찬송은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마리아를 경배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파생된 '어머니와 아기' 사상이 담겨져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이 되면 교회 안에서는 번번히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는 찬송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누룩들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훼손될 것이고 사탄의 무차별적 공격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캐럴 송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기원은 오시리스와 이시스 여왕의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오시리스가 죽은 후 그의 생존을 영적인 것으로 삼았던 이시스는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밤새껏 만발한 상록수가 솟아 올라왔다고 주장하며 매년 그가 태어난 기념일이 되면 오시리스가 상록수를 찾아와서 그 위에 은총을 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로부터 사람들은 나무를 세워두고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우상숭배로 확산되어 나무를 경배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늘날도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숭배 사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겨울이 되면 각 가정마다 나무를 세워두고 각종 장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보기에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에 담긴 의미와는 관계없이 치장을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종교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집안 곳곳에 침투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적인 교회들조차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것이 더 이상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시작은 매우 사악한 종교적인 형태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가톨릭에 의해서 보급된 우상숭배의 일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그마한 모양이라도 분별하여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라'

▶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12 월 25 일에 탄생하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마디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겨울도 아니었으며,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던 중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 시기 역시 겨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나셨을까요? 그 해답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시기는 대개 9 월 말에서 10 월 초 였으며, 예수님께서 33 년 6 개월의 사역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시기가 3 월 말에서 4 월 초에 해당되는 유월절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6 개월 전쯤인 9 월 말에서 10 월 초로 추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은 양떼들을 10 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는 모두 은신처로 피신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시기는 최소한 10 월 중순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보아서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날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12 월 25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2 월 25 일이 성탄절로 둔갑되어 지켜지고 있는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지만 12 월 25 일은 '태양신'(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알)의 생일이자 축제일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해 온 대표적인 우상숭배 사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 태양신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세상에 뿌리박고 있는가를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우상들 머리 위에 있는 후광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그들 종교의 시작이 태양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나 마리아의 머리에도 후광을 그려 넣음으로써 태양신처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태양신 종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4 세기 경에 지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수님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태양신과 복음을 혼합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로마종교 즉 태양숭배 사상의 전통은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시리스는 하나님, 이시스는 마리아, 호러스는 예수님을 대비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 를 섬기도록 했으며 태양신의 생일은 예수님의 생일로 둔갑시켜 지금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결코 기독교회가 아니며, 태양신 종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성탄절이 결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사악한 절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배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더욱 클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 진리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부디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위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장 부활절

그 무렵에 헤롯왕이 자기 손을 뻗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더니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더니 이는 이스터가 지난 뒤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함이더라(사도행전 12:1-5)

부활절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성경적인 절기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의미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흠 잡을 때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았고, 또한 증거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 당시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에 있어서도 주님의 부활은 가장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부활절(Easter day)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활절(Easter day)의 유래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왜 부활절을 영어로 부활을 말하는 "Resurrec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Easter"라는 말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부활절이 본래부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지켜져 온 것이 아니고 이방종교로부터 유입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회를 이방종교와 혼합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교묘하게 바꾸어 버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 역시 모든 이방 종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남편은 태양신으로 불려지도록 하였고, 자신은 달신으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하여 "하늘의 여신 혹은 하늘여왕"(렘 7:18, 44:17-22)으로 불려졌으며, 각 지역에 따라 아스다롯(삿 2:13), 아데미(다이아나 행 19:24) 등으로 불려졌고, 이 여인의 이름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이스터 축제일은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에 지켜져 왔으며, 그 안에는 다산과 새 생명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각종 행사의 모습들과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전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교사회에서는 인류의 역사가 거대한 계란으로부터 부화되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이교 전통 속에 있는 이스터 풍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풍습을 보면 토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대한 새가 있었는데, 여신은 그 새를 토끼로 변화시켜 주었고, 그에 대한 답례로 토끼는 매년 봄이 되면 여신을 위하여 아름다운 달걀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스터 절기 동안에 달걀을 먹는 풍습으로 바뀌어져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유월절과 이스터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터 축제일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사도행전 12:1-5 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더불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스터 역시 무교절 주간에 있는 축제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 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유월절과 이스터 축제일은 같은 기간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자료들을 통해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특별한 날로 생각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비록 절기로서 그 날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로마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교 숭배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날로 "이스터" 축제일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나 이교도들 모두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이스터 축제일은 특별한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칠 리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즉시 이것은 한데 묶어 "부활절"로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말하지만 명칭은 "Easter day"로 쓰고 있습니다)

▶ 부활절과 달걀

우리는 앞서 달걀을 먹는 풍습이 들어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달걀이 모든 이방 종교마다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사단숭배 집단인 드루이드 교도들은 달걀을 "거룩"의 상징으로 보고 있으며, 로마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행렬에 달걀을 앞세웠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계란을 축제 때 "봄의 여신"으로 섬기는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는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모든 교회가 달걀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달걀을 먹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주님이 부활을 생각하며 먹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달걀과 주님의 부활이 서로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생명이 있는 달걀을 죽여서(삶아서) 먹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교적인 행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먹는 풍습을 대부분의 이교도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그것이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달걀은 매일 낳을 정도로 그 생산성이 매우 풍부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의 수가 곧 민족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낳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질병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다산은 그들이 가장 고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대부분이 이 풍습과 전통을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달걀을 먹어야 합니까? 달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통이며, 매우 이교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이 교묘하게 기독교회 안에 누룩으로 심어놓은 전통일 뿐입니다.

▶ 부활절과 새벽집회

우리의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리면 부활절이 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촛불 하나를 손에 들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각종 잡스러운 의식들을 모두 없애고, 대형 집회들을 준비하여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모양으로 바뀌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새벽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새벽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들로 지켜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태양이 나타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교도들은 언제나 새벽에 기도와 제사를 드리는 풍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속신앙인들이 새벽에 비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특별한 시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부활절의 새벽이 그토록 중요한 시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를 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시간적으로 결코 새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일 삼일 밤 삼일 낮을 지나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면 유대인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아서 우리의 시간으로 본다면 안식일(토)이 끝난 오후 6 시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결코 새벽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부활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새벽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화롭게 치장을 하여 대규모의 집회를 열고 있지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새벽이라는 시간에 모여서 대규모의 집회를 가졌다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의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부활절이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소홀하게 대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로 인하여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린도전서 15:2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고전 15:20-51).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썩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변화하여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로마서 4:25)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은혜는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그쳤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결코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는 해결하고 의로워지지 못했다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심으로써 약속된 왕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공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베드로전서 1:3)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낳게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지셨듯이 이미 썩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자로 태어났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으니(에베소서 2:5-6)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날 때도 곧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처소에 앉히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역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또한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절기나 행사 때 기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부활을 축제일로 지낸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을 증거 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이 축제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갈 4:9-11)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절기로서 기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자들의 계략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기억하는 자세로 근신하며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장 추수감사절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골로새서 2: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골로새서 3:17)

해마다 가을이 되면 교회는 "추수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이 추수 감사절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3대 절기(성탄절, 부활절,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해마다 설교자들은 어떻게 이 절기를 말해야 하는지 곤혹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들은 절기의 기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감사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이 추수 감사절에 대하여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날을 절기로서 지켜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교묘하게 한국 교회에 누룩으로 숨어 들어와 매우 왜곡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 추수감사절의 유래

두산 대백과 사전에는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號)로 신대륙에 이주한 반(反)영국 국교회파 프로테스탄트교도들(필그림 파더스라 함)이, 첫 수확을 하느님에게 바쳐 감사한 일에서부터 비롯된 국민적 축제일

크리스마스과 같이 성대하며 11월 제4목요일에 행한다. 이와 유사한 풍습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구려 때 동맹(東盟)이라 하여, 10월에 전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그들의 선조인 주몽신(朱蒙神)과 그의 생모 하백녀(河伯女)를 제사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천신에게 감사하는 농제(農祭)를 올렸다고 중국 《위지(魏志)》의 〈동이전(東夷傳)〉에 전한다. 이러한 의식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부여에서 영고(迎鼓), 동예(東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는 제천의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가배(嘉俳)에서 유래한 음력 8월 보름의 한가위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차례(茶禮)를 올리는 풍습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메이 플라워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20년 영국 뉴잉글랜드 최초의 이민(移民)인 청교도(102명의 필그림 파더스, 즉 巡禮始祖)를 북아메리카로 수송한 선박.

무게 180t, 길이 27.5m, 돛 3개를 가진 배로, 원래는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商船)이었다.

1620년 8월 15일 사우샘프턴을 출항했으나, 같이 출항했던 스피드웰호가 누수(漏水) 고장을 일으켜 다시 돌아와, 같은 해 9월 16일 단독으로 영국의 플리머스항(港)을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였다. 11월

19 일에 케이프코드만(灣)을 경유하여 11 월 21 일 오늘날의 프로빈스타운에 입항하여 선박수리와 보급(補給)을 받은 후, 12 월 21 일 매사추세츠주(州) 연안에 도착하여 이 지역을 플리머스로 명명하였다. 이 선박은 이듬해 봄까지 플리머스항에 정박했다가 4 월 5 일 런던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위에서 말하는 메이 플라워호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결실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역사는 미국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지금의 절기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 것이며, 이 날을 온 국민의 축제일이자 국경일로 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자체보다는 이것이 과연 교회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참조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인들의 축제인 추수감사절

한국에서도 국민적인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날, 추석 등과 같은 날로서 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막론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나눕니다. 그 날만큼은 반드시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온 지역에서 교통 정체 현상들이 벌어져서 우리는 "귀성전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날을 명절로 지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독립기념일,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은 독립 기념일이 되면 국가적으로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며, 성탄절이 되면 한달 전부터 준비하여 가족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터키(칠면조)를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문화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몇 해 전 겨울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분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파송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추수 감사절이 되면 성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터키(칠면조)고기를 놓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외국에 머물면서 설날이나 추석을 맞게 된다면 떡국이나 송편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쌀을 구하러 다닐 것이고, 또한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인들의 문화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복음과 더불어 들어 온 누룩

사실상 추수감사절은 한국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날을 부활절,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큰 축제일로 지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수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음이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게 된 것도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 땅에 심기 시작했고, 더욱이 그 문화의 진원지를 교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인들에 대하여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저에게는 매우 훌륭하고 존경할만한 미국인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소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미국 땅은 인디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개척해 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방해꾼들이나 다름없는 원주민(인디언)들을 사정없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전역을 차지한 그들은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미국의 힘이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 많은 누룩들을 섞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누룩들로 인하여 교회는 완전히 부패되어지기 일보 직전의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추수 감사절에 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각을 묻는다면 무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 대부분은 "헌금하는 날"쯤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은 한국 교회 내에서 헌금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한국 교회에는 미국인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일년 중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를 부패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기복신앙의 열매

그렇다면 어떻게 추수감사절은 이처럼 쉽게 한국 땅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미국인들에 의해 복음이 들어왔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이 땅에 심는 데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 주된 원인을 기복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이처럼 엄청난 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이 드릴수록 많은 복을 받는다"는 생각과 가르침은 초창기부터 교회가 가르쳐 온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1 년 중 한 날을 정해서 드릴 필요가 있었고, 가장 적합한 날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1 월 4 째 주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농사일이 마무리되고 수확을 거두어 결산하기가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농사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해에 풍성한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도 그들은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예물을 드림으로서 그들 스스로 위로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운영과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교회는 이 절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날의 견혀진 헌금과 헌물은 1 년 동안 교회를 운영해야 했고, 기복신앙에 바탕한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은 자연스럽게 이 절기에 맞춰서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 절기로서의 추수감사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그것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갈라디아서 4:9-11)

바울은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다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가리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만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마도 더욱 놀라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를 교회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미국인들에게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만 그 넓은 미국 땅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날을 기억하라는 말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성경이 기록된 지 약 15 세기가 지나서야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순교 당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휴일을 제공하고,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들을 기억하며, 일년 중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절기인데 반하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은 것은 명백한 누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날들을 절기로서 받아들이고 지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을 천한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감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데살로니가전서 5:18)

우리는 위와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면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가 결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많이 "감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약 231 회).

그 감사는 결코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날 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도,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만 어느 때, 무슨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감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즉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 것이며, 또한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는 것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어질 보상으로 인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절기로서의 감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기억될만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서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온 누룩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된 감사와 안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4 장 사순절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디모데전서 4:1-3)

어느 순간엔가 기독교회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자연스러운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과 더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율법에 의해 지켜지도록 계시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들이 만들어 낸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허울 좋은 수단으로 만들어 낸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사순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유래와 전통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명확하게 그 유래와 전통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대부분의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사순절의 유래와 전통에 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그대로 담아보았습니다.

▶ 사순절(Lent)의 유래와 전통

▷ 콘스탄틴 황제 이후,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지(Holy City of Jerusalem)로 순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그 곳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전 주간 동안 지키는 특별한 예배 관행 등을 발달시켰다.

▷ 4 세기말 경에 '종려주일(Palm Sunday)'로 불리는 날에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순행(Procession)하는 것과 '주의 만찬 목요일(Maundy Thursday)'에 성만찬과 철야(Vigil)를 지키는 것, 그리고 '수난일(Day of the Passion)' 또는 '파스카일(Paschal Day)', 더 나아가 성 금요일(Good Friday)'에는 '3 시간 예배(Three hour service)'등이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건예배(devotion)는 입교자 및 순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었다.

▷ 사순절 기간 중의 주일은 '사순절기내 주일(Sunday in Lent)'이라고 부르며, 금식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주일은 항상 축제일로서 일찍부터 구속과 부활을 경축하는 '주의 날'로 따로 구별했기 때문이다.

▷ 사순절의 초점은 교육과 준비와 갱신에 맞추어졌으며, 이 시기쯤에 사순절기를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며 40 일간 금식하셨던 것에 견주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5 세기쯤부터 사순절기의 시작이 뒤로 4일 밀려나서 '40'이라는 숫자를 채우게 되었다.

▷ 사순절에 보통 사용하는 색깔은 참회를 뜻하는 자주색(purple)이며, 최근 들어 '성주간(고난주간)'에는 적색(deep crimson)을 쓰기도 한다. 옛날에는 '주의 만찬 목요일'과 '성 금요일'에는 적색을 사용하였고,

오늘날 몇몇 지역에서 부활되기도 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주의 만찬 목요일'에는 흰색, '성 금요일'에는 흑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은 '사순 중간 주일(Mid-Lent Sunday)'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에 읽도록 지정된 복음서 말씀이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휴양 주일(Refreshment Sunday)'이라고도 부른다. 또 영국에서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떠나, 어머니를 특별히 방문하는 가정학습의 풍습이 있어, '귀향주일(Mothering Sunday)'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날의 전통적인 입당송의 첫마디가 'Laetare'로 시작되기 때문에 '라에타레 주일(Laetare Sunday)'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기뻐하라(Rejoice)'는 뜻이다.

우리가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이 절기는 철저히 가톨릭에서 시작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절기 안에 많은 의식들을 담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독교회 안에서도 이 의식들을 받아들여 목사의 스톨이나 강단의 꽃꽂이를 할 때에는 그 해당되는 색깔로 장식을 하고 절기를 보냅니다.

▶ 사순절 의식

아래의 내용은 사순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어느 목회자의 글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에 도대체 어떠한 의식들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야(Easter Eve)까지의 40 일 간으로 탄식과 참회를 행합니다. '재의 수요일'이란 사순절의 첫날로, 옛날에는 이 날에 참회자 머리 위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술과 육식을 금하며,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합니다. 통상적으로 헌신, 자제, 금식,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초기 교회사나,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했던 중세기부터 전래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하였으며, 부활절 전까지 육식을 하지 않으므로 경건의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사순절은 음식과 매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식을 선포하여 예수님의 40 일 금식을 말하다가 나중에는 육식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음식물을 삼가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딤후 4:1-3)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율법적인 가르침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 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욱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해 줄 것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날 동안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2:8,9)

사순절은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서 자신의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보상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모한 희생과 헌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사순절과 카니발(사육제:謝肉祭, Carnibal)

어떤 자료에는 주로 남미 지방에서 성행하는 카니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 전 40 일간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40 일간 금욕, 단식, 참회, 희생 등을 해야 하므로, 사순절 전에 고기도 먹고, 놀고, 마시는 데에서 유래한다. Carnival 이란 Caro(고기)와 Valens(잔뜩 배불린다)의 합성어이다. 대개 사순절 직전 3 일이나 일 주일 간을 즐겼다. 그리고, 축제 형식의 기원은 로마시대 동지제(冬至祭), 농신제(農神祭, 12 월 17 일)로서 이는 이교인의 제사였다. 초기의 카니발은 주의 공현 축일(1 월 6 일)에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전 날의 화요일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후 역대 교황들은 재의 수요일 직전 한 주일로 정하기 시작하였다. 요즈음은 대학가 등지에서 연례적인 축제로 지내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가장 행렬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누더기 같은 것을 시가지에 걸어놓고 즐긴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카니발은 사순절이 만들어 낸 매우 음탕하고도 더러운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축제가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창녀가 되고, 사람들은 미치광이가 되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타락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침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러한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생겨난 절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교에서 나온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교의 절기를 로마 가톨릭이 교묘하게 기독교회에 접목하여 절기, 혹은 의식으로 만들어 축제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의 일부 대학생들에 의해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도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이 땅에 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그들의 사회에서는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니까요? 이것은 이미 성문화가 파괴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순절과 금식

위에서 보듯이 사순절은 가톨릭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며,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순절이 극히 비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경건의 삶까지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식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사순절이라는 절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나 이에 그 마귀가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오니라 그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없음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오직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태복음 17:18-21)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너희가 금식과 기도예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은 그리하되 다시 서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참지 못하므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전서 7:4,5)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마태복음 6:16-18)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사도행전 13:1-3)

우리는 위에서 보듯이 신약 성경에서만도 많은 부분에 걸쳐서 금식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권능 있는 삶을 위해서나, 주님의 큰일들을 위해서 반드시 금식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극히 사악하고 거짓된 절기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사순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시대에는 복음적인 일부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순절을 절기로서 인정하고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절이 극히 이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듯이 사순절도 극히 이교적임에도 불구하고 절기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활절과 사순절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해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순절을 교회에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 누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절기와 의식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경건의 삶은 사순절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안에 새 생명은 부활절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경건하게 보내야만 하겠습니다.